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성 확립

경기도포천교육청, 한택식물원 생태체험학습

경기도포천교육청(오정순 교육장)은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 서울 정릉극장 뮤지컬 관람에 이어 두 번째로 5월10일 용인 한택식물원에서 '달려라! 뛰뛰빵빵 보듬이 주말버스학교'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생태체험교육은 교과와 연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봄을 맞아 흙을

뚫고 올라오는 어린 풀꽃들을 관찰하고,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꽃과 나무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체험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또한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간벌 과정을 학습한 후, 간벌로 나온 목재를 이용하여 나무 목걸이를 만들고, 이끼와 식물을 재료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모스 토퍼아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5월10일 용인 한택식물원에서 '달려라! 뛰뛰빵빵 보듬이 주말버스학교'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포천신문 통해 새로운 세상 만났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춘계수련대회 개최

“삶의 향기는 달라도 기쁨과 행복을 찾는 건 다 마찬가지라 봅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남겨진 상처는 달라도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은 5월13일 강화 석모도에서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으며 위글은 신델라 부총무가 글짓기 시간에 제출한 글이다.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춘계수련대회는 산책 및 글짓기, 인형어시장 장보기 등으로 진행했으며 버스 이동하는 시간에는 각자 5분 스피치 시간을 마련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날 춘계수련대회를 준비한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이 글자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춘계수련대회도 많은 분들의 도움

이 있었다”고 밝히고 “포천신문사의 위상에 걸 맞는 주부명예기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련대회에서 발표한 5분 스피치의 주요 내용은 각자의 힘으로 살아온 과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고 가장주부로서 만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주부명예기자들의 목소리도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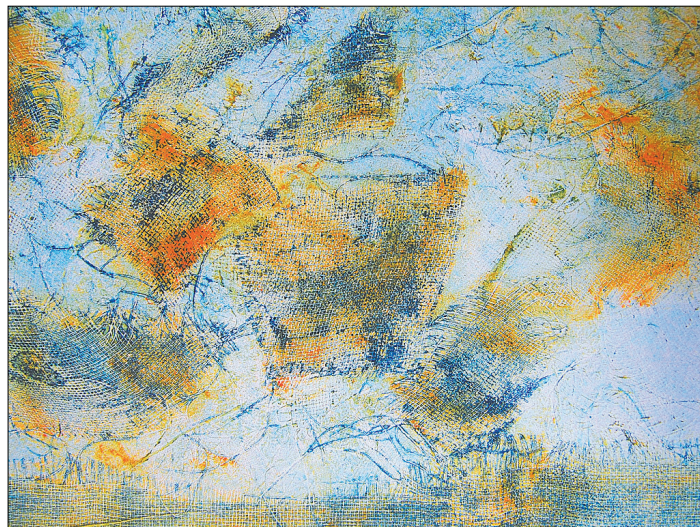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2004년8월11일 창립하여 현재 200여명의 주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소식은 물론 가정주부로서의 이야기 등을 보도하고 있다. (편견기사 8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5월13일 강화 석모도에서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紙上갤러리 ② 임현미의-순환(循環의 원리)



순환(循環), 종이에 혼합재료, 75x51cm, 2007

글/강구원(화가, 계간비질주간)

후기인상파의 한사람인 세잔은 그의 고향 빛깔을 그리면서 그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보물처럼 여기던 원근(색채, 투시도법)법에 의한 자연의 묘사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점의 평면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 화면 안에서 여러 개의 시각의 초점을 두어, 풍경을 한 방향에서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20세기 미술은 새롭고 끝없는 항해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 즉 세잔의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캔버스가 평면이라는 점을 새롭게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선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망사를 깔고 해라와 나이프로 자연스럽게 다진 화면이 한옥 벽면을 만들 듯 정성스럽고, 손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게 한다. 물고기, 여인의 가슴과 유기적인 곡선이 어우러져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 청색 묘선으로 드로잉한 선의 자유로움이 소슬바람을 일게 한다. 군데군데 황색의 번짐과 근근함이 오랜 시간과 친근함을 대신한다. 이는 자칫 청색과 청회, 흰색으로 이어지는 다분히 현실적인 삭막함을 온화한 점으로 풀어 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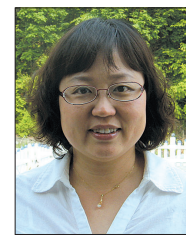
임현미의 '순환'에는 형상이 있지만 화면이 평면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터치의 단순함에서 과함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작가의 심장을 드러내는 솔직성과 진실함이 녹여 있음을 뜻한다. 삶을 혈액이 체내에서 돌듯이 새롭게 변화하며 순환되길 기원한다. 그리고 고대 동굴벽화의 제의적인 염원을 포함하면서.....그리고 먼 미래는 오랜 과거를 찾아가는 길과 어쩌면 달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시립어린이집 ⑩

화현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 담은 꿈이 펼쳐지는 보육 현장

‘튼튼한 어린이, 남과 더불어 사는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



꿈과 사랑이 자라는 곳 화현어린이집(원장 최유진)은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873번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최유진 원장은 “화현어린이집 문을 들어서면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온다”며 “예쁘게 꾸며진 보육실 공간은 아이들의 웃음을 담은 꿈이 펼쳐지는 보육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언어, 인지, 정서, 신체, 도덕성 발달을 위한 전인 교육을 통해 예의 바른 태도, 원만한 인격형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겠다”며 “맛있는 자녀의 질 높은 교육과 안전한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아들을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튼튼한 어린이, 남과 더불어 사는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를 원인으로 삼아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능력을 기르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생활 태도와 습관을 기르며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3년1월 개원한 화현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48명이며 2006년부터 대기인원이 늘어 증축공사에 들어가 교실 3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인 아파트가 있어 이용률이 높은 것도 화현어린이집의 특징이다.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집이 세워진 것은 화현어린이집이 1

호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건축되지 않아 현재는 교실공간이 비좁지만 새로 증축되는 교실은 좀 크게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인조잔디구장 등 주변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텃밭 가꾸기도 주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배추, 무,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오이, 수박, 참외, 시금치 등을 재배하는 월별 프

최 원장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있어서인지 전입신고 하러 왔다가 입학원서를 쓰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입주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현어린이집에서는 또 조립식 수영장이 있다.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름 6m크기의 조립식 수영장에 물을 받아서 원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원장은 지역의 유지 분들은 물론 면사무소 관계자, 포천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땅 고르기, 이랑 만들기, 퇴비 뿌리기, 씨앗 뿌리기, 모종심기, 텃밭의 벌레 관찰하기, 지렁이 관찰하기, 각종 채소 수확하기, 고추 말리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을 직접 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등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화현어린이집은 원아들에게 예절교육 및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자세 익히기, 바르게 인사하는 법, 상황에 맞는 인사말, 한복 스스로 입고 벗기, 한복의 명칭 알기, 평절, 큰절하는 법, 양반다리로 앉는 법, 여러가지 종류의 차, 다기의 명칭, 다도 하는 법, 행다순서 알기, 순배 대접하기, 가정에서의 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다. 예절교육은 주회 실시하고 있다.

시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크고 작은 예로서는 즉시 해결하고 있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밝혔다.

화현어린이집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과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최 원장은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것은 “대중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특이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 어린이집만의 특색 사업을 적극 보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아모집 포스터나 현수막을 한 번도 내건 적이 없어도 대기가 늘어날 정도로 증축에 들어간 화현어린이집은 지역에서 사랑받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변함없는 맛 · 정성을 다해 만든 무봉리 토종 순대국

자연그대로의 맛과 향기 플로렌스 삼겹살 · 순두부



철판볶음



토종 순대모듬



철순대



■삼겹살 : 8,000원
 ■순두부정식 : 7,000원
 ■두부삼합 : 20,000원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기를 옮겨놓았습니다.

- ▶국내 최초 삼겹살 레스토랑의 혁명!
 - ▶호텔급 샐러드(30여가지) 무한제공!
 - ▶대형연회석 완비
 - ▶셔틀버스 운행(10인 이상)
 - ▶샐러드바 PM. 5:30 Open
- ☎ 031-544-4492~3



무봉리 토종 순대국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031-877-9969
 본 사 : 031-542-4466